

강진군, 제2의 '마랑에 가고싶다' 노래 발굴 나서

역사·문화 등 내용...창작비 지원 9월10일 마감...사용권 계약 방식

강진군이 음악으로 강진을 알리기 위한 공모에 나섰다. 공모 과정에서 심사는 없으며 강진과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의 내용으로 음원을 발매시 군과 사용권 계약을 맺어 창작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2의 '마랑에 가고싶다' '여수 밤 바다' 등의 곡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2023년 지역

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 전국 공모를 오는 9월10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과정을 없앤 이색 공모전으로 제목 또는 가사에 강진의 역사, 문화, 시, 인문, 관광지 등 강진 관련 내용을 담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경우 강진군과 사용권 계약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여타 공모사업과 달리, 강진군에서는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방식으로 창작자의 실연권 및 저작권

을 보장한다.

'음악으로 강진알리기 대작전'에 참여한 음악예술인들은 곡당 최대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지역문화활력축제 '병영의 B.A.M.' 쇼케이스 무대 초청 후보로 자동 선정돼, 대형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태경 강진군 음악도시 조성 차장은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음악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데 먼저 목적을 둔 실험적 사업이다"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

해 예술인의 눈으로 강진의 숨은 보석을 발굴해, '마랑에 가고 싶다'나 '여수 밤바다'와 같은 멋진 곡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음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 레지던시 '강진, 살자', 지역내·외 음악인 네트워크를 위한 '모모강 진예술인', '문화활력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angjin_lc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1004몰' 2주년 축하 이벤트 왕새우 등 전품목 20% 할인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오는 7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14일간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설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왕새우, 천일염, 김, 홍어, 낙지, 새우젓, 유기농쌀, 마늘, 양파, 섬초, 대파 등 갯벌을 품은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350여 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신안1004몰'은 계절별로 개최되는 섬꽃축제, 섬수산물축제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와 신안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입점된 농어기를 순회 방문해 상품 접수·배송·정산과 민원응대 등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원활하게 소포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는 20% 할인 기획전,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경품(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내용 SNS 공유시 적립금(2000원)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홍일갑 기자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 목포 하당동, 1만5000개

목포 하당동이 관내 소재 기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가능 자원(투명페트병·우유팩·폐건전지) 수거 동참을 호소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8일 목포시 하당동에 따르면 주요 상가(식당·마트·모텔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분리배출 방법이 실린 홍보 전단지과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일부 업소는 인력, 장비,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동직원들이 직접 방문 수거에 나섰다.

처음 참여업소가 2개소로 저조했는데,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동직원들과 공공근로참여자가 직접 방문 수거하면서 참여업소가 6개소로 늘어 3개월만에 수거 실적이 1만5000여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하당동 관내 소재 숲속아일랜드유치원에서도 유치원생들에게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시연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7kg의 우유팩을 수집해와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14장과 교환해 가는 등 홍보와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는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건전지 500g(AA기준 20개) △종이팩 500g(1000ml 17개) △투명페트병 40개(용량 무관)를 가져오면 20l 규격의 종량제 봉투 1장과 교환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선정 진도군, 임산부 등 가정 지원

진도군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임신·출산 단계의 예방적 건강관리, 양육 지지 등 각 가정에 개별화 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000여만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통해 기본방문과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에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건강 상담과 우울 평가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평가 등을 제공한다.

지속 방문은 우울감,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최근 취약계층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고군면 복지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활동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

진도군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대장 임익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수급자 가구를 위해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28일 진도군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에 따르면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20여명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LED 등으로 교체 △주택 내·외부 정리 등의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군면 복지공동체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배, LED 등 교체 및 주택 내·외부 정리를 진행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와 가구를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나무 기증' 정원 조성 강진 녹색경관 추진위 출범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만생태공원에서, 강진원 군수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정원'에 군민과 향우, 사회·기관단체들이 기증한 나무를 심어 멋진 정원을 조성하고 군민과 향우, 관광객들에게 강진만 생태공원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는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 일원의 조경사업에 군민과 향우 등의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정원문화 홍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하나 된 힘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녹색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진군 사회·기관단체장 및 읍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계각층의 나무 기증의 염원을 담은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군은 주민주도형 나무 기증 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기증자의 표지석 설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원과 연계해 남포마을 빈집을 활용한 작가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많은 분들의 나무 기증 운동으로, 강진군민과 사회,기관단체가 함께 만드는 의미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나무를 기증하고 싶은 군민은 올해 10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전략사업추진단(061-430-5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 고향사랑기부제, 6개월만에 기부자 1000명 돌파

수도권·호남지역 기부자 75% 한도액 500만원 기부자 26명

해남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6개월만에 기부자 1000명을 돌파하며 전국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을 앞두고 기부자는 1043명으로, 한달 평균 170명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26.4%), 경기(16.8%), 서울(16.7%), 광주(15.2%) 등으로 수도권과 호남지역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 75%에 달했다.

사연도 다양했다. 복일면 출신 LG화학 광민한 상무는 "해남군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을 받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환원했다.

광주 거주하는 마산면 출신 이원오 법무사는 땅끝해남소식지에 실린 고향사랑



해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해남군 제공

기부제 소식을 접하고 손편지와 함께 300만원을 보내왔다.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55명,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도 26명에 달한다.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자도 753명으로 전체 기부자 73%를 차지했다. 화산면 출신 박주석(심크리에이티브 대표) 신구대 교수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 상징물과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엠블럼 디자인 등을 재능 기부했으며 경기

안산 송지면 출신 이영길 향우는 마라톤 대회에서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문구를 부착한 배에로 복장을 한 채 폴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해남군 모금실적은 매력있는 답례품도 한 몫했다. 군은 선호도가 높은 쌀, 고구마빵, 김치, 해남사랑상품권, 해남미소 상품권 등 답례품 26종을 1차 선정하고 5000원 이내의 배송료 실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해 타지자세 대비 답례품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강화했다. 해남=전연수 기자